

고주령 계군 생산가담으로 난가회복 늦어지고 있다

김 우 호 (양지부회장 대표)

1. 시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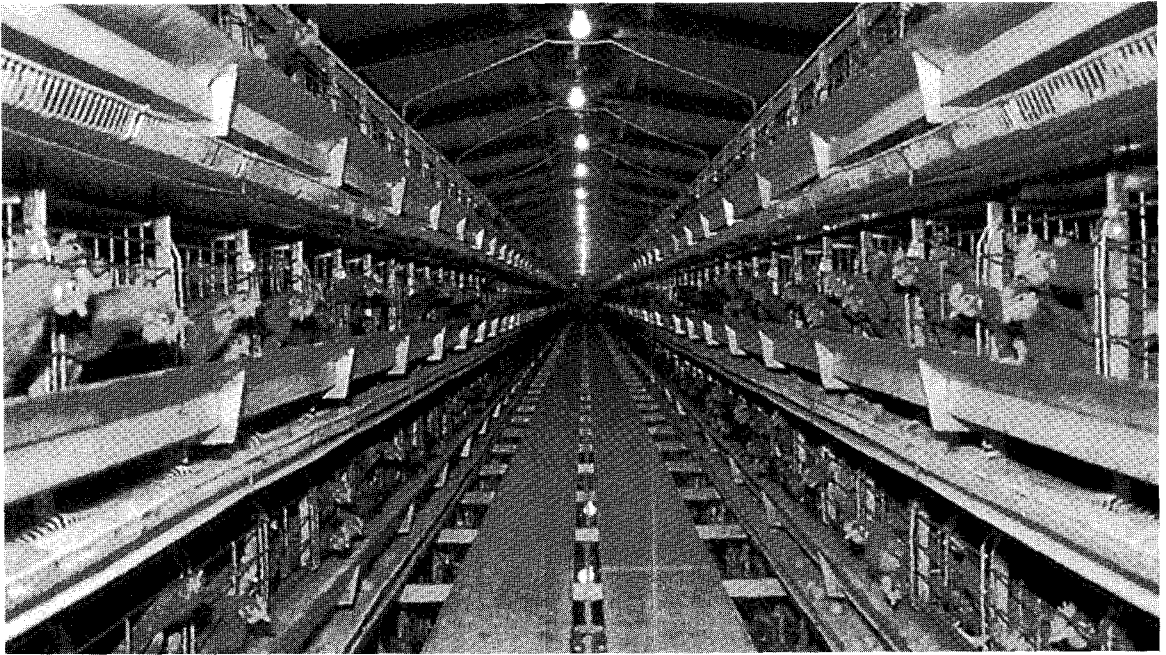
근년, 국내 채란양계업은 매 2년마다 계란가격이 불황과 호황이 교차되는 주기적인 변동(Egg Cycle)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화장의 산란종계 입식수수 또한 같은 주기로 증감을 거듭하면서 종계입식이 많이 되는 이듬해에는 난가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생산량 증감 현상에 따라 소비지수와 맞물려 난가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오르내리는 후진적인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큰 폭의 가격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 이후만 하더라도 2년에 한번씩 산란종계 입식수수가 증가하였다가 2년 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난가가 좋은 해에는 종계 입식이 증가하고, 난가가 하락하면 다시 종계입식이 감소하는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종계수급이 불안정한 수준에 있음을 나타내는 단면이 되기도 한다. 이유야 어쨌든 종계입식수수와 계란가격이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단기간의 주기적인 변동을 반복하며 양계업을 지탱해 나간다는

점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새삼 깨닫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실물경제가 침체되어 계란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침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된다. 소비는 감소되고 있는데 반해 생산량은 노계 환우를 통한 생산기간 연장과 입추수수의 증가 등으로 계란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심한 난가 급등락으로 이어져 농가는 수익성 악화로 경영난에 빠져드는 취약성을 내보이고 있는 점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통구조 또한 새로운 농장 경영에 적합한 선진형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침체와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폭락 사태가 빈발하여도 수급조절 능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양계업은 시설자동화에 의한 고밀도 사육으로 생산비 수준이 과거에 비해 내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여건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탈피하기 위해 농가들은 사육규모를 계속 늘리는 추세에 있고, 소규모 재래식



사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채산성 악화로 경쟁력을 잃어 탈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지속적인 저난가 구조하에서 다수의 경영이 탈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경영의 존속을 위하여 무분별한 규모확대 → 공급과잉 → 난가하락 → 수익성 악화 → 규모확대를 반복하는 골인지점이 없는 확대경쟁, 즉, 「박리다매형」 또는 가격하락을 생산량 증가로 대응하는 구조적인 모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 계란 생산량 추이

1) 산란종계 입추 현황

산란종계 입추수수는 매 2년마다 증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도표1).

즉, 입식수수는 '97년 증가를 나타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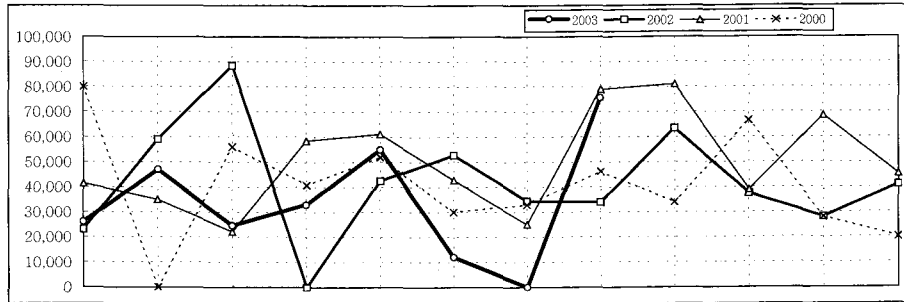
'98년 감소하였고, '99년 다시 증가폭이 컸다가 '00년 감소하였고, '01년 다시 증가를 보인 후 '02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난가는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였다.

특히, 지난 '01년에는 예상치 못했던 계종의 종계 8만여 마리가 수입되어 증가폭이 커지면서 '02년도 추석이후 난가를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년의 경우에는 7월말 현재 197,500수가 입추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300,400수보다 약 35% 정도가 감소하여 지난 5월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난가 흐름을 다소나마 유지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와 같은 흐름이 잘 유지된다면 현재 5개소 정도로 압축된 산란종계 생산농가들이 금년에 입추하게 될 종계는 42만수대가 유지되지 않았는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 몇 년간에 걸쳐 더욱 굳어지고 있는 고

주령 계군의 강제환우를 통한 노계 사용기간이 대폭 길어짐으로써 증가하게 되는 계란 생산량은 또 다른 계란 생산증가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종계 입식이 감소하였다 하여 무조건 난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종계부화업은 실용계 농장에서 요구하게 되는 병아리를 항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고, 실용계 또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계란 생산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비에 따라 입추수수가 즉시 변동하는 과거와는 달라졌으나 아직까지도 가격에 따라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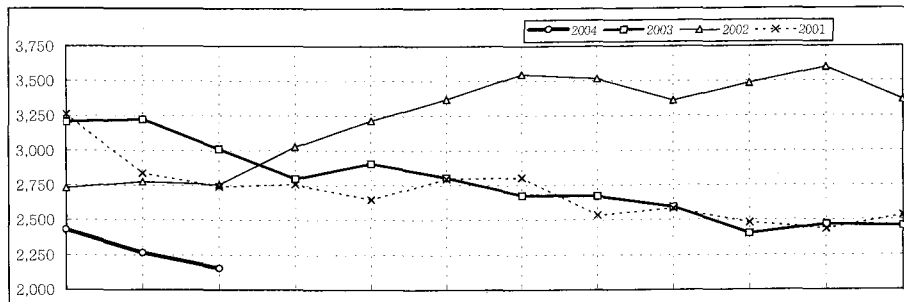


(단위: 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997	20,000	56,920	95,000	36,300	22,500	33,000	142,000	90,700	0	12,200	20,000	58,600	587,220
1998	26,200	16,600	80,000	20,000	82,400	10,000	20,800	78,000	37,500	86,500	33,500	63,500	555,000
1999	121,400	46,000	52,600	0	39,000	0	154,152	54,000	20,800	93,000	20,000	34,500	635,452
2000	80,000	0	56,000	40,800	52,000	30,000	33,000	46,200	34,000	66,500	28,000	20,000	486,500
2001	41,400	35,000	22,000	58,500	61,200	42,800	25,000	79,000	81,000	39,000	68,500	45,300	598,700
2002	23,000	59,000	88,500	0	42,600	52,800	34,500	23,000	63,415	37,500	28,000	41,000	495,315
2003	26,000	47,000	24,500	33,000	55,000	12,000	0	75,510	-	-	-	-	-

〈도표1〉 연도별 산란종계 입식수수 현황

자료: 대한양계협회



(단위: 천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1	3,260	2,837	2,739	2,756	2,646	2,797	2,804	2,533	2,582	2,478	2,432	2,531	32,395
2002	2,729	2,774	2,754	3,027	3,215	3,369	3,546	3,516	3,360	3,485	3,598	3,366	38,739
2003	3,205	3,223	3,012	2,797	2,907	2,804	2,676	2,671	2,593	2,401	2,465	2,454	33,208
2004	2,462	2,299	2,155	-	-	-	-	-	-	-	-	-	-

〈도표2〉 산란용 실용계 생산 잠재력

자료: 대한양계협회

추수수가 변동되는 모습은 기본적인 모형이 되고 있으며, 중추업 비중이 커지면서 병아리 입추 현황도 과거와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도표2).

2) 계란 소비량의 추이

2000년 이후, 계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표1).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식생활이 고급화되고 있지만 계란 소비량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채란양계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축

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건강, 안전성에 있다. 성인병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계란의 소비저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렇듯 계란 소비가 정체·감소하는 것은 경기 침체, 건강지향 닷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계란을 이용한 요리가 단순하여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기인되는 현상을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들의 식습관이 변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당장 계란 소비를 증가시키려고 하여도 어려움은 있게 된다.

채란업계가 처한 현실을 놓고 볼 때에 닭고기와는 좀 다른 면이 있어 계란을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제품개발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농가들은 대개 원란으로 유통상인에게 판매를 하고 있어 계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홍보나 신제품개발을 위한 노력에는 다소 수동적인 면이 있으며 유통상인 역시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업소용이나 난 가공 등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언론매체에서까지 건강과 성인병에 대한 프로그램 방영횟수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성인병에 대한 유해 유무를 떠나 일단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인하여 소비자들 계란 소비를 더욱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계란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계란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학교급식용 요리개발과 계란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개발 등 관련업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1. 연도별 계란 소비량 추이

구분	연간 1인당 계란 소비량 (개)
1997	192
1998	182
1999	184
2000	189
2001	191
2002	192

3. 금년 4/4분기 난가 전망

난가는 지난해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금년 상반기 내내 생산비이하에서 거래되는 양상을 보여 채란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준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외형상으로는 생산비를 상회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이른바 「DC」가 적용된 농가 실제 수취가격은 평균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채산성은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표2).

대개의 농장들이 지난해 9월 이후, 정부가 발표한 계란 개당 생산비 73원보다 실거래 가격은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경영에 있어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분석이다. 생산비는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난가는 하락하여 장기간 저난가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리는 결과는 빚었다.

표2. 연도별 계란 월 평균 가격

(단위: 원/10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999	991	1,131	1,026	1,077	947	866	793	875	874	764	790	809	911
2000	793	734	581	556	535	608	718	862	1,004	899	832	874	749
2001	992	929	1,026	1,025	954	839	921	990	1,124	1,009	957	1,047	984
2002	1,014	915	929	870	905	900	830	984	1,056	840	685	692	885
2003	703	660	768	760	766	750	779	865	-	-	-	-	-

자료: 대한양계협회

중계입식이 감소함으로써 계란 생산이 이후에는 감소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채란농가 대부분은 노계 사용기간이 현저하게 길어지는 추이이므로 신계가 당장 감소한다고 계란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의 난가 흐름을 살펴보면 2000년 9월 이후부터 난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며 2001년에는 연중 생산비를 웃도는 난가가 형성되어 병아리 가격이 높아지게 되자, 병아리가격 상승과 구입에 애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한다는 판단으로 실용계 농가마저 산란 종계수입에 관여하여 병아리 과잉생산을 더욱 부추겨 2001년말에는 초생추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공급과잉으로 인한 병아리가격이 장기간 생산비수준 이하로 형성된 결과, 산란용병아리를 공급하는 부화장이 급기야 9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압축되어졌다.

2002년 6월부터 계란생산량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생산량이 자연 감소하는 여름철을 지나 추석 이후부터 소비 감소가 맞물려 난가는 사상 유례 없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병아리 입추과열은 산란종계 생산으로부터 구조조정이 되기 시작하여 2002년도 4/4분기에 접어들어 겨우 진정이 되면서 금년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계에 의한 계란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과거에 입추수수가 과다했던 시기의 고주령 계군에 의한 계란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난가 회복은 기대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다. 그 예를 들면 육추사료의 경우, 03년 1~7월까지의 누

계가 전년 동기대비 86.8%수준에 그쳤으나 동 기간 산란계용 사료는 100.6%로 오히려 늘었으며 금년 7월의 산란계용 사료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대비 104.9%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 환우 물량의 규모와 불황의 의미를 단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 문제는 산란업계 스스로가 비장한 각오와 결단으로 시급히 도대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은 만큼 난가회복과 농가의 수익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남들이 다 즐기고 나만 안 즐으면 되는데」하는 바램이 모두 다 같은 생각이면 앞으로도 불경기는 변함없이 없고 남 닷만 하게 되는데 물론 농장마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나 스스로 한발먼저 솔루션수범을 보일 때라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지나친 편견과 새로운 소비처의 미확보로 인한 계란소비량의 정체에 있다. 가정용 소비는 물론 업소용·가공용 소비에 이르기까지 증가보다는 감소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어 양계업 성장의 정체·침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 4/4분기에는 신계군에 의한 계란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우 노계 역시 물량 면으로는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을 단풍놀이철과 연말 특수가 기대되는 때이기도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이어서 계란 소비도 감소할 우려가 큰 만큼 노계를 적기에 도태하고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는 농장관리로 양계경영의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이 부단히 요구되고 있다. **양계**